

전남 인기 여행지 여수·순천·담양·광양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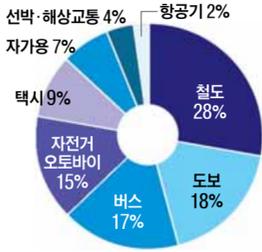
■ 빅데이터로 본 관광 현주소

명소는 죽녹원·섬진강·청산도
관광객 76% “당일·1박2일”
96%가 전남 음식 만족한다

연간 관광객 1300만 시대를 연 여수와 순천만정원으로 뜬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이 네티즌사이에서도 전남 관광지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곳으로 조사됐다. 네티즌들은 또 죽녹원, 섬진강, 청산도 등 주로 자연경관을 보기위해 전남을 방문하고 여행시 체류기간은 76%가 당일이나 1박2일 등 단기여행에 그쳤다.

24일 전남도가 공개한 ‘SNS 관광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네티즌 사이에 가장 많이 언급된 지역은 여수·순천·담양·광양 순이었다. 언급된 내용중 긍정적인 의견 비율은 여수·담양·완도·고흥·구례 순이었다. 완도와 고흥은 언급량에서는 전남 22개 시군중 9위와 21위였지만 만족도는 3.4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조사는 전남도가 SK텔레콤에 의뢰해 1년간(2015년 7월~2016년 6월) 뉴스와 블로그, 카페, SNS 등 284개 사이트에서 ‘전남관광’ 관련 10대 키워드(유사어 포함 116개)를 바탕으로 103만건의 인터넷 문서를 수집, 분석한 결과다.

■ 이동수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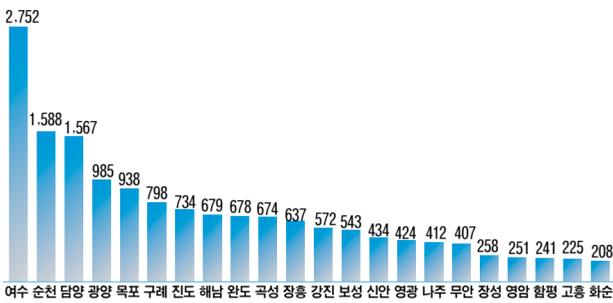


전남여행시 체류기간은 1박2일(48%)과 당일(28%)로 단기여행이 76%를 차지했지만 재방문율이 37%에 달해 첫 방문에 만족을 느낀 여행객들이 다시 찾은 경우가 많았다.

96%가 전남 음식에 대해 만족을 표시한 가운데 특정 음식보다 반찬을 가장 많이 언급해 전남의 푸짐한 상차림이 네티즌 사이에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음식별로는 한우·홍어·삼합·한정식·간장게장 순으로 관심을 보였는데 10대는 꼬막정식, 20·30대는 한우, 40대는 홍어삼합, 50대는 간장게장을 꼽아 연령별 선호 음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명소를 찾는 이유를 유형별로 보면 자연경관(63%), 역사관광(26%), 체험관광(7%)으로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은 주로

■ 전남 지역별 언급량



■ 연령대별 만족도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자연경관	죽녹원	섬진강	죽녹원	오동도	오동도	죽녹원
역사관광	송광사	쌍계사	낙안읍성	향일암	향일암	화엄사
체험관광	섬진강	순천만	순천만	자산공원	자산공원	순천만
문화시설	태백산문화관	소천미술관	아쿠아플라넷	아쿠아플라넷	아쿠아플라넷	신안문화원

죽녹원·섬진강·청산도·오동도 순으로 즐겨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체험관광지인 순천만정원이 20·30·60대에서 1위를 차지했고 문화시설인 여수엑스포장내 아쿠아플라넷이 30·40·50대에서 1위를 차지해 순천과 여수가 최근 몇년새 가장 뜨는 여행지임을 보여줬다.

축제가운데서는 광양매화축제·담양대나무축제·구례산수유축제·곡성장미축제·순천만갈대축제 순으로 네티즌 사이에 많이 오르내렸는데 만족도 100%로 부정적 의견이 전혀 없는 축제는 순천만갈대축제였다. /장필수기자 bungy@

윤장현 시장 지역현안 국비 확보 쟁걸음

국회·기재부 찾아 도움 요청

윤장현 광주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앞두고 24일 국회를 찾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병완의원, 이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윤 시장은 이들에게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사업 등 주요 현안들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윤 시장은 또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과 안도걸 복지예산심의관을 만나 광주의 최대 현안 사업인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개최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윤 시장은 “정치인이 아닌 한 국민, 시민으로서 자동차 100만대 사업은 꼭 성공하고 싶은 일”이라며 “기아차·금호

타이어 노조의 지지까지 얻어낸 만큼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제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오히려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해외 투자 중인 국내기업의 회귀를 유도해 국내제조업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고 사업의 가치를 설명했다.

광주시가 국회에 추가·증액 요구한 예산은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403억원), 무등산정장 군부대 이전(50억원),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사업비(74억원) 등 총 40건 274억원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7월과 10월에 지역 국회의원 2차례의 예산정책감담회를 개최했으며, 8월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순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17년도 지역 현안사업 국고예산 반영 등 국회의원의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전남 농수산물 833만달러 美·中 등 수출

9개국 바이어 초청 계약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833만 달러 어치가 미국, 중국, 일본 등 9개국에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24일 “최근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및 신규 거래선 확보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 등 9개 국 24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833만 달러의 수출계약(MOU 포함)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출상담회에는 전남지역 72개 농수산물 수출기업이 참가했다.

상담회 결과 나주 골든힐이 미국 키트레이딩(KHEE TRADING)과 300만 달러, 고흥 한성푸드가 일본 해태퍼시픽과 200만 달러, 강진 푸드코리아가 미국 우보(WOORO LLO)와 100만 달러, 순천 팜푸드가 태국 에이스푸드와 100만 달러, 총 700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맺었다. 수출계약은 담양 안박자한과의 한과류 50만 달러, 장성 북하특산물사업단의 장류 29만 달러, 순천 마린테크노의 콜라겐 제품 26만 달러, 담양 명진식품의 스페리 13만 달러, 해남 OK라이스센터의 쌀 5만 달러, 고흥 한성푸드 10만 달러 등 133만 달러에 이른다.

이번 농수산물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전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aT전남지사, 전남도 해외통상사무소 등과 연계해 이뤄졌다. 또 계약까지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240여 건의 수출상담이 이뤄졌고, 바이어들의 수출기업 현장 방문에서 추가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수출 전망을 밝게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새누리 광주시장·전남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선임

새누리당은 24일 광주시장 위원장 직무대행에 한경노(56) 광주 동구·남구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전남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에는 이승안(63) 광양·구례·곡성 당협위원장을 선임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광주·전남 시·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임명(안)을 원안 의결했다.

한경노 광주시장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4·13총선에서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등을 역임



한경노 직무대행 이승안 직무대행



24일 오전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제1회 기술·창업주간 선포식’에서 김종식 광주시 경제부시장과 지역 대학 총장들이 (주)광주연합기술지주 현판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창업도시 선도 ‘(주)광주연합기술지주’ 출범

지역 대학 우수기술 발굴 청년창업·일자리 창출

광주시가 지역 대학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이용해 청년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을 목적으로 ‘산·학·관·연’을 아우르는 기구를 출범시켰다.

광주시와 (재)광주테크노파크는 이날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김종식 경제부시장과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남부대, 광주여대 등 6개 참여대학 총장, 유관 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광주연합기술지주(대표이사 장민) 출범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주)광주연합기술지주는 대학이 가진 우수기술을 적극 발굴해 지주회사를 통해 창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대학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분산된 기술사업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총괄 운영을 맡고, 6개 참여대학은 우수 특허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연구소기업 등록 등 창업 지원, 광주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성 및 특허기술상품화 지원 등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주회사 운영을 착실하게 내실을 다져 2020년까지는 신규 창업 25개, 매출액 257억원, 고용 195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 창업한 자동차·에너지·화장품 등 1~4호 자회사는 이날 현판식과 함께 연구소기업 인증서를 받고 본격적인 기업 활동에 들어갔다. 4개 자회사는 6개 참여대학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이용해 합작투자

와 전환설립 방식으로 창업했다. 1호 자회사는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호남대가 가진 특허기술을 이용해 화장품 전문기업 ㈜GU솔루션을 창업, 대학 연합의 의미를 살렸다. 2호 자회사는 조선대 특허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전조등 LED전문기업 ㈜우투마를, 3, 4호 자회사는 전남대 특허기술을 이용해 안전부품 전문기업 ㈜솔라라과 에너지 전문기업 ㈜태선에너지를 창업했다.

광주시는 지난 3월29일 6개 참여대학과 협약을 통해 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지역대학은 현금 9억원과 현물을 포함한 50억원을 출연하기로 협약을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28~29일 광주·전남 방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오는 28일과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을 방문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으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안 전 대표가 호남 방문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광주·전남을 방문, 정권 창출의 강력한 의지

를 밝힐 것”이라며 “호남이 세상을 바꾸는데 동력이 돼 달라는 메시지가 던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지난 23일 SNS를 통해 “2012년 위로를 전했던 멘토 안철수는 2016년에 세상을 바꾸려고 행동하는 투사 ‘강철수’(강한 안철수)가 되겠다”며 대선을 앞두고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16-00592호(반) (2016.09.2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06호(2016.09.20)

창립 34주년 특판 300억 한도

(한도소진시 조기 마감)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1년 복리정기예금 2.40%

(연이율, 월복리, 세전이율, 만기이자지급)

부동산담보대출!!

신축자금대출!!

할인어음!!

구도청1 ●충장파출소 ●광주세무서 ●국민은행 ●NC WAVE

더블저축은행 ■ 본점 (062)223-5506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